



THC Project

2014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유럽 무대에서 인정 받고 있는 연주자

첼리스트 최 주 연

첼리스트 최주연은 6세에 첼로를 시작했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에서 수학했으며 서울예고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로 건너가 유럽 최고의 명문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최우수성적으로 1등 졸업을 하며 학사와 석사 (Licence, Master)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연소로 입학하여 현재까지 세계적인 거장 Arto Noras와 함께 사사하고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재학 당시 TARAZZI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현재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악대학의 "DAAD(독일정부학술 교류원)" 장학생이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이탈리아 명기인 Vincenzo Postiglione 첼로를 무상으로 후원 받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청소년음악콩쿠르, 스트라드 콩쿠르, Elise Meyer competition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1위 및 입상하며 일찍이 실력을 인정 받은 그녀는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앙상블 콩탱포랭 등 세계적인 음악단체와 수차례 연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프라드에서 열리는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에서 아르토 노라스 등 세계 최고의 거장들과 연주하여 주목을 끌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첼리스트 Francois Salque, Emmenuel Gaugue, Frederic Lodeon 등과 함께 수차례 첼로앙상블 프랑스 전국 투어 연주를 하였고, 이탈리아 Cerv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서 솔리스트로서 첼로앙상블과 협연하였다. 세종문화회관, 호암아트홀, 예술의전당, Salle Pleyel, Cite de la musique, Musee de la marine, Les invalides, Notre dame de Paris, Galerie Royales Saint-Hubert, Museum furKunst und Gewerbe in Hamburg, Kronberg Academy, Maurice Ravel Academy, Mendelssohn Academy, Rutesheim Cello Festival 등 국내외의 유명 콘서트홀과 페스티벌에 끊임없이 초청되고 연주를 하고 있다.

독주뿐 아니라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Quatuor Rhapsody 를 창단하여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에서 실내악 전문사 과정을 이수하며 Sulem quatuor 의 멤버인 Jean Sulem을 사사하였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Monsieur Haydn Festival 에 초청되어 여러 차례 연주하였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Ton Koopman, Michel Bouvard, Susanna Malkki 등과 같은 많은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함부르크의 Laeishalle에서 리사이틀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예정에 있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7시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김 가 램

피아니스트 김가람은 선화예술학교 수석 입학 후 재학 중 도불하여 파리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에 최연소의 나이로 입학하였다. 이후 유럽 최고의 음악원으로 꼽히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등 입학했으며 이후 Erasmus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영국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각각 수학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일찍이 실력을 인정 받아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도불 이후 15살의 나이에 파리에서 독주회를 시작으로 Concours International d'Ile de France 우승,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de Lagny sur Marne 2위 및 프랑스 한국 문화원 초청 연주, Theatre Mogador, Salle Gaveau 등 저명홀 뿐 아니라 런던, 로마, 니스 등 유럽의 전역에서 꾸준히 연주 활동을 펼쳤다.

솔로 활동과 동시에 실내악에도 깊은 조예가 있는 그녀는 스무 살에 나이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혜선과의 호흡을 시작으로 플루티스트 미셸 모라게스, 색소포니스트 클로드 드랑글, 작곡가 니콜라 바크리 등과 같은 유럽의 저명 대가들과 꾸준히 한 무대에 서왔다.

국내에서는 금호아트홀 '동시대 음악가들과의 만남' 시리즈 연주,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예프 교향악단 협연, KBS 클래식 오딧세이와 Arte TV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온 그녀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T&B 프로젝트 전유성의 "팡팡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와 "개나소나 콘서트", 넥스트 신해철과 함께한 "클래식&락심포니", 인천공항 "문화와 하늘을 잇다" 의 크리스마스 힐링 콘서트 외 여러 연주 활동으로 대중에게 사랑 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그녀의 첫 번째 싱글 앨범 La Caresse 는 네이버 주목 받는 앨범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집 ReVersal과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 Noel for Piano를 발매하며 꾸준히 대중들과 만나오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

L. v. Beethoven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4번 C장조, 작품번호 102-1

Sonata for Piano and Cello No.4 in C Major, Op.102-1

I. Andante - Allegro vivace

II. Adagio Tempo d'Andante Allegro vivace

슈만

R. Schumann

환상소곡집, 작품번호 73

Fantasiestücke for Cello and Piano, Op.73

1. Zart und mi Ausdruck

2. Lebhaft, Leicht

3. Rasch und mir Feuer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작품번호 40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Op. 40

I. Allegro non troppo

II. Allegro

III. Largo

IV. Allegro